

일병목회강좌 이사야 2장

정리 : 최희영 목사

1. 약속과 성취 (사7:10-17)

① 약속

- 아람-에브라임 연맹이 쳐들어오는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아하스에게 준, 그들이 곧 망할 것이니 겁 내지 말라며 그 징조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 처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길러서 그 아이가 철들기 전에, 즉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두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② 성취

- 신약에서는 정말 '처녀가 애를 낳은 것'으로 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증언하며, 그 아이가 실제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다.
- 20여년 정도의 시간으로 주어졌던 것을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나는 것에, 이 예언의 성취를 묶었다.
- 시간상으로 약속과 징표를 줬던 사건을, 신약에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것으로, 즉 초월성으로 받았다.
- 둘이 묶일 수 없는데 묶은 그 모순과 불합리에 무엇이 담겨있는가 생각해야 한다.

③ 기적(Miraculous Sign)

- 동정녀 탄생은 기적이다. 수 없이 일어난 많은 기적들에 담긴 각각의 독특하고 풍요로운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2.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 (로마서 5:1-10)

① 이미 완성된 구원

-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는 소망의 확실성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 우리가 믿었을 때도, 구했을 때도, 필요를 알았을 때도 아닌, 모든 조건이 없었던 때 -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죽었다.
-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2천년 전에 일어났으므로, 그 사건에 대해 반응을 할 수도 없고, 선택을 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도 없었던 때에 구원이 완성되었다.

② 시간의 역전

- 하나님은 우리를 2천년 전에 구원해 운명을 결정해 놓고, 결정된 인생을 아담이 선택한 불순종에서 시작하여 죄인으로 태어나 중간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서 허락된 구원과 불순종한 인간의 선택

둘을 비교해보라고 하신다.

- 예수의 승리는 이미 역사적 사건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취소될 수 없다. 그러니 우리의 운명도 취소될 수 없다. 취소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쥐서 해 보자고 하시는 것이다.
- 되나 안되냐를 보자는 것도 어떤 결론이 나느냐를 보자는 것도 아닌, 과정을 보자는 것이다.

③ 시간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

- 이사야 7장의 예언과 신약이 받아낸 성취 선언은 시간을 보여서, 예수 안에서 이뤄진 일이 무엇인가와 예수를 믿고도 환난 속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건이 된다.
- 하나님이 이 처녀가 결혼해서 애 낳고 길러 철이 드는데 까지 순서대로 가는 시간을, 뒤로 쪽 밀어서 처녀가 결혼하기 전의 시점에 애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 처녀가 시간이 흘러 애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은총 속에서 일어나는 - 하나님의 통치, 즉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 애를 앞에 놓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시간이 하나님 손 안에서 역전될 수 있다고 말한다.
-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공간의 기적을 믿는다면 시간의 기적도 믿어야 한다.
- 구약의 수많은 예언은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곧 운명이 된다는 것이다.
- 우리의 믿음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그 결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나의 번덕과 실패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그 결과를 만들겠다는 것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다.
-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 않는 한, 가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은혜를 담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다.
- 십자가는 실패이며 가장 큰 수치이며 가장 큰 형벌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부활을 담으심으로 더 이상 절망도 부끄러움도 아닌, 기독교에서 가장 큰 자랑과 영광의 상징이 되었다.

④ 기적에 담긴 내용

-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시간 속에 우리의 이해와 반발과 절망과 간절함 같은 것들을 담아서 우리를 만드시기를 기뻐하신다. 동정녀 탄생이다.
- 시간은, 우리를 실패케 하거나 괴롭히거나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 시간은, 그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 주어졌다. 다만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훈련시키고 성숙시키고 납득시키고 항복시켜서 그 입술에서 이 고백을 받아낼 것이다.
-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주 예수 안에서 사랑하신 것을 믿사오며, 내 인생이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절대 지지 않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것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 우리가 당하는 환란과 자책 같은 것들이 일을 한다는 것을 성경의 이런 약속들로 확인하는 것이 동정녀 탄생이다.

3. 회복, 우리의 완성 (사11:6-9)

① 영원한 나라의 평화와 승리 (롬8:18-25)

- 사11장이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는 대단히 평화로운 환경이다. 이와 반대되는 지금 세상의 문제는 상대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다. 인류가 죄를 지어 자연세계가 전부 저주와 죄와 썩어 짐과 멸망 아래 있는 것이다.
- 자연세계가 회복되는 것은 환경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 우리가 회복, 종 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 한다.

② 자유, 실력

- 세상은 자유를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표현과 같이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 최악 된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이해가 없다. Ex) 정직은 거짓말과 반대되는 어떤 용기나 격려이며,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은 성실히 책임 있게 사는 것이다.
- 자유란 하나님의 자녀, 종이 아닌 자녀만이 가지는 어떤 특권이며 대단히 명예로운 것이다.
-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영광의 실력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실력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다.

③ 명예

-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며, 용서하고 참고 격려하는 것은 명예로운 것이다.
-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든 사랑과 용서와 인내로 한 인간이 채워지는 것이야말로 영혼이 아는 기쁨이다. 분노하고, 고통지르고, 비난하고, 보복하는 것은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며, 영혼을 망치고 주변을 오염시키고 모두를 더러움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 만물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점 곧 기준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의 자녀들을 이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실력까지 끌어오는 것이다.
- 죽음과 유혹과 기만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죄가 하는 짓을 비교하고, 그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이 휘둘리는 인생 속에서 점점 커나가는 것이다.
 - ▶ 결국 예수를 믿는 자의 가치는 하나님께만 있다. 그만이 의를, 진리를, 생명을, 용서를, 회복을, 감사, 기쁨을, 명예를, 영광을 만드실 수 있고, 세상은 무슨 일에서나 더러움과 싸움과 비열함과 악행과 공포와 비극을 만들 뿐이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신자의 한 인생이다. 이사야에 녹아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 ▶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내용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으로 족하다.
 - ▶ 성경이 증언하는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고 있는지 기억하는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시라.